

덴마크 자유교육을 위한 그룬트비와 콜의 역사적, 사상적 위치

송순재(전 감신대 교수)

1. 니콜라이 그룬트비

니콜라이 프레데릭 시버린 그룬트비(Nikolaj Frederik Severin Grundtvig, 1783-1872)는 번영을 구가하던 19세기 중엽의 덴마크 사회를 배경으로 살았다. 그룬트비 당시 덴마크는 왕정체제 하에서 오랫동안 평화를 구가하고 있었고, 상업과 교역은 극동아시아와 서인도에 이를 정도로 번창했으며 중산층은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부를 향유하게 되었는가 하면, 농산층에 대한 사회적 억압과 경제적 곤경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개혁적 조치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시기 덴마크는 물론 유럽 전체에 널리 알려진 탁월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동화작가 아너슨(Hans Christian Andersen), 실존주의 철학자 키어케고어(Soren Kierkegaard), 신고전주의 조각가 베아틀 토어벨슨 (Bertel Thorvaldsen)이 바로 그들이다. 하지만 현대 덴마크 사회를 위해 그 어떤 사람들보다 중요하고 다방면에 걸쳐 불후에 업적을 남긴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그룬트비이다.

그룬트비는 덴마크 루터 국교회에서 지도적 영향력을 행사한 목사이자 신학자, 감독으로서, 시인으로서, 라틴어와 앵글로 색슨어, 현대 덴마크어 분야에서 독보적인 언어학자로서, 당대를 대표하는 역사가이자 문화철학자로서, 독보적인 북유럽신화 연구가로서, 덴마크에서 널리 사랑받는 1,400여 편에 달하는 방대한 찬송가의 번역자 겸 작가요 편집자로서, 정치가이자 교육자로서, 근대기의 덴마크가 종교, 문학, 역사, 정치, 경제, 교육 등 문화의 제 영역들에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는데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그룬트비는 자신이 속해있던 중부 유럽과 스칸디나비아 문명권, 특히 영국이라는 환경 안에서 덴마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몰두했다. 그는 정치가로서 1848년부터 49년까지 2년간 제헌의회 의원으로서 절대왕정의 종식을 의미하는 '신자유헌법'(New Free Constitution) 제정을 둘러싼 논의와 투표에 참여했으며, 또 19세기 강력한 독일과의 정치적 위협과 긴장 관계 속에서 덴마크의 정신과 삶을 지켜내기 위한 거국적 투쟁과 스칸디나비아 여러 나라들을 위한 정신적 및 교육적 운동에도 참여했다. 이 모든 영역에서 그룬트비는 당대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독창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였다. 그의 저작물은 방대하여 130여권 분량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 점에서 종종 독일의 괴테(Johann Wolfgang Goethe)에 비견되기도 한다. 그룬트비의 삶과 작품은 덴마크 현대사에서 불후의 것이 되었으며 또한 국제적 맥락에서도 여러 중요한 의미를 가져왔다.

다음에 그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다.

1) 그룬트비의 생애, 사상과 주요 작품

1) 그룬트비 생애 부분은 Niels Lyhne Jensen(ed.)의 『그룬트비 선집 (A Grundtvig Anthology. Selections from the writings of N.F.S.Grundtvig)』 (Cambridge: James & Co.), 15-30의 논조를 간추렸고, 아울러 다음 문헌을 참조했다. Karl K. Aegidius, "덴마크 사회와 그룬트비의 사상", 김자경 역, 『처음처럼』 23(2001.1/2): 67-77; Royal Danish Embassy, "N.F.S.Grundtvig", www.denmark.org/grundt.html; Arthur Macdonald Allchin, *N.F.S.Grundtvig. An Introduction to his life and Work*, Aarhus Uni.Press, 1998; Poul Dam, 『덴마크의 아버지 (Nikolaj Frederik Severin Grundtvig)』, 김장생 역 (누멘, 2009). 이 중 마지막 문헌은 최근 국내에서 나온 그룬트비의 생애와 사상에 관한 상세한 해설서이다. 문헌들에 대한 해석은 경우에 따라 상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논조가 일치되는 부분을 따라가며 기술했다. 개개의 인용 부분들에 대한 각주는 생략한다.

그룬트비는 1783년 9월 8일 쉰 시엘렌(South Zealand)의 우드뷔(Udby)에서 덴마크 루터 국교회 목사로 경건주의자였던 요한 오토센 그룬트비(Johan Ottosen Grundtvig, 1734-1813)와 어머니 카트리네 마리에(Cathrine Marie, 1748-1822)의 아들로 태어났다. 1792년 아버지의 제자인 한 젊은 목사의 목사관(일렌Jutland의 튀레고드Thyregod 소재)에서 개인교수를 받았는데 그곳에서 그는 내용적으로 잘 준비된, 그리고 인간적으로 개방적이며 따뜻한 매우 좋은 교육을 받았다. 덴마크 루터 국교회와 경건주의 신학은 이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경건주의는 루터국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신앙의 객관주의적 이행, 즉 교리와 교회의 신자 됨에 중점을 둔 당시 덴마크 루터교회적 신앙 행습을 비판하며 개인의 주체적 깨달음에서 신앙의 본질을 찾자 했던 신앙운동이었다. 경건주의는 현세를 내세를 위한 순례의 길로 이해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서 지상의 삶이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요 죄를 회개하면서 정화되어가는 과정으로 죽음이란 보다 나은 생명에 이르기 위한 관문으로 이해되었다. 그룬트비는 소년 시절 그러한 경건주의적 분위기에서 자라났다. 예컨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덴마크의 위대한 찬송가 작사자 킹고(Kingo)의 작품들은 그러한 연관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 그는 아버지의 책장에서 세계사에 관한 오래된 연대기를 탐독했는데 그것은 그의 역사의식을 발전시켰으며 생애 전반에 걸쳐 지적인 토대가 되었다. 그는 이로 인해 평생 인류의 역사 발전을 둘러싼 근원적 물음에 매달렸다.

이 두 가지, 즉 경건주의적 기독교와 역사학적 물음은 그에게 하나의 상호 긴장과 갈등, 혹은 제3의 해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 갈등은 다음과 같은 물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인간의 생활과 인류사는 그것 자체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인가? 사후의 생활만이 중요한 요소인가? 죽음은 해방의 한 형태로서 이해되어야만 하는가?”

종교개혁자 루터는 소년 그룬트비의 영웅이었다. 그는 그의 전기를 탐독했다. 그는 감독이었던 아저씨 벨레(Balle)의 영향을 받아 성서로써 당시 합리주의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고자 했다. 그러나 차츰 당시 급진주의 사상과 회의주의에 사로잡혔다. 그는 성서를 비판적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는 목회자들을 위한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었다. 그런 아들 그룬트비의 생각을 아버지는 계속해서 성서를 가지고 교정시켜 주었다. 이후 그는 1798년부터 3년간 오후스(Arhus) 라틴어문법학교(Arhus Latin School, Jutlandic Vicarage)에서 고전 희랍어와 히브리어 그리고 성서교육을 받았지만 그 경험은 혐오 할 만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가 17세 되던 해인 1800년 그는 코펜하겐 대학에 가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는 그를 길러준 경직된 정통주의 신학으로부터 돌아서서 당시 지배적이었던 신학적 합리주의로 경도했다. 다른 학생들처럼 여러 아마추어 활동, 카드놀이, 파이프 담배, 음주 등 다른 학생들처럼 자유분방한 생활을 즐겼지만, 현대 문학과 역사서를 탐독했다. 1803년 10월 25일 최우수 성적으로 신학 공부를 마쳤다. 졸업 후 그는 재학시절 몰두했던 역사와 문학에 다시 빠져들었으며, 아울러 북유럽을 주제로 한 시와 희곡, 소설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작가적 기예를 닦아 나아갔다. 당시 그는 성직 보다는 작가에 더 많은 뜻을 두었던 것 같다. 이 시기 가지게 되었던 북유럽문학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그는 자연스레 고대 북유럽언어 연구에 이끌렸다.

경제적인 이유로 그는 1805년부터 1808년까지 한 섬인 랑에랜의 에게뢰게(Egelokke, Langeland)에 있는 장원(莊園)에서 7살 난 아이를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된다. 이 과제를 그는 열과성을 다해서 감당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는 그로 하여금 결국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독서클럽을 설립하는 등 지역공동체적 삶에 깊이 참여하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당시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그가 6년 연상인 장원의 여주인을 사랑하게 된 것인데, 이 전망 없는 사랑으로 인해 그는 절망과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묘하게도 이를 계기로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자기인식에 도달하면서 속으로부터 솟아나는 거대한 영적, 지적 에너지를 경험하게 된다.

이즈음 그는 자연의 신성에 대한 낭만주의적 관점과 시를 영원의 계시로 보는 그들의 관점에 접하게 되는데, 이는 그의 친족이자 자연철학과 낭만주의의 대변자였던 헨릭 스테펜스(Hernrik Steffens, 1773-1845)의 영향에 의한 것이었다. 그는 피히테의 작품을 비롯하여 독일 낭만주의 철학과 시적 세계의 대표자인 셸링(F.W.J.Schelling, 1775-1854)과 노발리스(Novalis), 덴마크 낭만주의의 대표적 서정시인 윌렌슐레거(Adam Oehlenschläger)의 시에 빠져들었을 뿐 아니라, 괴테(Goethe)와 셸러(Schiller) 그리고 그에게 평생 영감을 불어넣었던 셰익스피어(Shakespeare)를 탐독했다. 이러한 배움과 사색의 여정에서 그는 “인생의 신비”에 대한 통찰에 사로잡혔으며, 직관에 의해 조화로운 세계를 포착하려는 낭만주의적 세계관에 매료되었다. 당시 덴마크의 많은 젊은이들은 이 새로운 낭만주의 사상에 매료되었는데 그룬트비는 여기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였다.

아울러 당시 그는 고대 스칸디나비아의 역사와 북유럽 신화 안에 있는 신적, 보편적 정신을 추구했는데 이는 그 세계 안에서 또 다른 형태의 낭만주의적 계기를 형성하도록 했다. 그는 북유럽 신화에서 영원의 반영과 도덕적 가치, 북유럽인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찾아냄으로써 신화를 자연 현상의 상징적 표현으로 본 당시의 해석과는 달리, 낭만주의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신화의 통합된 비전을 추구했다. 그는 스칸디나비아 신화에서 기독교와 동일한 선상에서 신성을 통찰했다. 이 경험으로 인해 그는 자신을 키워주었던 루터 국교회적 신앙으로 되돌아갔다.

1808년 그는 코펜하겐으로 돌아와 2년간 교장으로 일하면서 작가로서 역사연구에 몰두했다. 하는 동시에 출판인 겸 교장으로 일했다. 이 해에 첫 번째 책 『북유럽신화』(Norse Mythology)을 펴냈다.

1810년 그는 첫 번째 시험 설교를 행했는데, 이는 정통 기독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자 합리주의적 신학을 추종하던 신학자들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담은 것이었다. 여기서 그는 기독교 신앙에 관한 인습적 이해 방식을 따르지 않고 ‘기독교적 과학’(Christian Science)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가 기독교적 과학에 고무된 것은 과학만이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신념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기독교 신자들은 그들의 신앙에 부합하는 과학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신앙했지만 동시에 세속 세계와 천상 세계에 대한 **지성적 탐구**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것이 과학자들에게 신앙에 대한 무지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피력했다. 기독교적 과학에 대한 그의 관심은 그가 초기부터 인간의 **역사**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를 어떻게든 나름대로 기독교신앙과 결합시켜 보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그는 이 시험적 설교 후 여기에 ‘기독교적 과학’을 추구하는 원리를 옹호하는 서문을 붙여서 출간했는데, 이 견해는 당시 대학 의회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이후 그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종교적 위기에 처하게 된다. 과중한 일과 타고난 우울질로 인해 그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광적 상태에 빠져들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차츰 회복되는 과정에서 그는 병중에 있는 아버지의 목회를 돕기로 겸손한 마음을 먹고, 1811년부터 1812년까지 2년 동안은 우드뷔에서 설교와 목회 일에 종사한다.

1812년에는 자신의 역사관을 『세계사개요』(a Short Summary of a World Chronicle)라는 형식으로 엮어냈다. 그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역사의 중심사건으로 기술하면서, 그가 무신론적인 것으로 보았던 덴마크 사회와 교회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룬트비는 진정한 애

국심에는 믿음이 필요하고 기독교 신앙은 세속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성취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생각에 도달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는 스스로를 역사가로서 자각하게 된다. 1810년 그는 역사에 관한 많은 저작물들과 그중에서도 종교개혁에 관한 문헌들을 탐독했다. 그는 종교개혁의 주창자들인 게르만인들이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에 접하여,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북유럽인들의 인생관, 정의감, 신화, 이교성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한 물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차후에 한 국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50년 후에 쓴 회고록을 보면 그룬트비는 당시 그가 이르게 된 확신을 통해서 일체의 두려움과 안개의 베일을 걷어버리고 황홀한 신앙의 경지를 체험했던 것 같다. 그는 어린 시절 후 다시금 처음으로 순수한 열정과 마음을 다해서 성경, 특히 예언서와 루터와 킹고의 찬송가를 읽고 기도하면서 당시 덴마크에게 요청되는 개혁(종교적 개혁과 민족적 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숙고하였다. 그는 여기서 그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낭만주의**를 신학과 결합시켜 보려 했지만, 실패한다. 고대 역사는 종교개혁기부터 당대에 이르는 시기에 대한 연구에서 그가 중시했던 18세기 이후의 역사와 함께 그를 사로잡은 주제가 되었다. 그가 기독교신앙에 전향한 이후 그는 낭만주의라는 이상, 특히 셸링의 자연철학을 무신론적 자연주의로 판단하고 등을 돌리게 된다.

1812년 출간한 ‘사가’(Saga, 북유럽 영웅들의 전설적 무용담)에는 순례자의 관점이 잘 나타나 있다. 그룬트비의 모든 글에는 조국에 대한 영혼의 향수가 낭만주의적 어조로 깃들여 있다. 그는 덴마크의 정치적 경륜과 국가가 반드시 기독교적 가르침에 입각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2년이 경과했을 때 그는 자신의 사상을 확고하게 정립하기 위해 1815년 홀연히 목사직을 그만두었는데, 그 까닭은 목사로서가 아니라 “비전(秘傳)을 이어 받은 시인” 겸 학자, 즉 시인이자 역사가로서 이야기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하여 종종 그의 ‘신학적 시기’로 불리는 그의 첫 시기(1811-1815)가 끝나게 된다.

하지만 그의 세계사 개요는 당시의 합리주의적 시대상과는 들어맞지 않았던 것으로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그는 1814년과 1817년 개정판을 냈는데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 중심 사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과학적 지식에 충실한 역사기술을 시도했다.

그의 세계사 개요 초판(1812)은 그로 하여금 당시의 식자들과의 격렬한 논쟁에 휩싸이게 했는데 그 주된 논점은 저명한 물리학자 외어스테드(Hans Christian Oersred)였다. 여기에 그의 다른 작품과 설교도 원인이 되어 그는 학자 세계와 교회로부터 괴짜요 말쑥꾼으로 따돌림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1815년 마침내 성직을 내려놓게 된다.

1815년부터 1821년까지는 그 자신 그렇게 명명했듯이 ‘역사학적 시기’에 해당한다. 1818년 첫 번째 여인 엘리자벳 블리허(Elisabeth Blicher, 1787-1851)을 만나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이 시기 그는 『데네 비어케』(Danne-Virke)라는 문학과 철학을 주제로 한 정기간행물을 펴내면서, 국사, 문학, 역사적 수필과 역사 및 종교를 주제로 한 시들을 게재했는데, 이는 모두 신앙과 국민생활의 경쟁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 때 그룬트비는 성서 대신 역사를 주제로 삼았다. 그는 역사를 진리가 세속적으로 나타난 상이요 그 증인으로 보았다. 이것을 통해 기독교 정신이 한 번 살아날 것을 기대했다. 이러한 작품 활동은 4년간 지속되었다. 그는 데네 비어케에 게재된 자신의 작품 ‘형태-행위’와 ‘세계사 개요’ 개정 3판(1817)에서 역사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자 했는데 단 시라는 도구의 도움을 받도록 했다. 시 없이는 과거와의 관계는 죽은 것이 되며 정신의 왕국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가질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초자연적인 관계도 파멸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의 마지막 좌우명인 “먼저 인간이 되라 그리고 난 후 그리스도인이 되라”(First a man and then a Christian)는 이 사상의 핵심을 간명하게 표현한 것이다. 그 주된 기여라 할 것 같으면 스칸디나비아의 중세기 때 나온 두 개의 문학작품 (삭소Saxo의 Gesta Danorum과 스노리 스투어루손Snorri Sturluson의 하임스크링글라Heimskringla)으로, 중세 노르웨이 왕들의 역사를 번역, 소개한 것

이었다. 그룬트비는 이 작품들이 대중들에게 다가가도록 대중적 관점과 잠언과 방언에 의한 독창적인 글쓰기 기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연속되는 과중한 일 속에서 그룬트비는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 없었다. 그러던 끝에 1821년에는 시엘렌의 프레스토(Praesto) 교구 목사로 부임하게 되고, 이어서 1822년에는 코펜하겐에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Church of our Saviour)로 옮겨가 그곳에서 1826년까지 시무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의기소침했고 정체상태에 놓여 있었다. 역사학적 연구를 통해 국가를 일깨우고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한 저술 작업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이었다. 이즈음 그가 읽고 번역했던 이레네우스(Irenaeus, 남프랑스의 교부, 132-302 A.D.)의 작품 "이교도에 대하여"(Against the Heretics)에서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된다.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은 신의 피조물로서의 인간과 생명과 사랑으로서의 신의 본질을 성장과 발전, 진보라는 일종의 진화론적 사고에 따라 논한 가르침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레네우스 연구는 그의 설교에 새로운 동기를 가져왔다. 그는 물질적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를테면 몸 역시 타락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했다. 소리 없는 말씀, 말씀 없는 성령, 감정 없는 생활 그리고 마음 없는 사랑이 무의미한 것처럼 몸 없는 삶에 대한 논의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 보았다. 이것은 당시 육체를 경멸하던 풍조와는 반하는 것이었다. 이런 시각에서 그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창조된 지상생활을 새롭게 함, 즉 인간생활의 회복에서 찾았다.

1823년 대강절 기간 중 그의 마음은 신자로서 시인으로서 국민의 개혁자로서 활활 타올랐다. 여기서 그룬트비는 북유럽의 영웅적 정신을 기독교 정신에 따라 현재의 시점에 적합하게 생기 있게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는 일차적으로 신의 말씀을 성서본문에서가 아니라 세례와 성도의 교제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들을 수 있는 말씀에서 찾았다. 이는 교회에서 처음 들려진 것으로, 주님 자신이 '성례전' 때 나타내신 '살아있는 말'(a living word)을 뜻했다. 살아있는 말은 역사의 호흡이며 인간생활의 호흡이며 역사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서 교회 속에서도 존재하는 것이어야 했다. 즉 "말씀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으로서. 그것은 과거형이나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으로서의 역사와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의미했다. 복음은 인간의 언어로, 그리고 모든 민족의 언어로 말해질 수 있어야 하고, 한 언어가 잘 구사될 수 있으면 복음 역시 잘 전달될 수 있다. 그러한 언어는 인간의 생활을 해방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신앙적 언어가 그러하다면 그것은 일상생활의 언어도 그러해야 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의 철학에 관한 것이었다... 이 '비할 데 없는 발견'에 의해 그룬트비는 자신의 기독교에 대한 역사적-교회적 관점을 구축하게 된다. 이 핵심은 1825년 7월 31일 설교 때 처음 선포되었다.

여기서 그는 그동안 자신을 불안하게 했던 현대 성서비평학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그는 같은 해 8월 젊은 성서신학자 클라우슨(H.N. Clausen)이 (성서비평적 자유주의신학의 입장에서) 펴낸 책 『가톨릭과 개신교의 헌법, 교리와 의례』(The Constitution of Catholicism and Protestantism. Doctrine and Ritual)를 읽고 이를 격렬한 어조로 조목조목 반박하며 오류로 단정지었다. - 클라우슨이 합리주의에 기초한 신학자로 성서적 진리를 지적 이성애 의해 추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겼다면, 그룬트비는 기독교 신앙을 역사적 공동체에 의해 전승되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양자는 날카롭게 구별된다 - 하지만 상대방은 이를 학적 논쟁의 자리에서 다루지 않고 법적 소송꺼리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그룬트비는 1826년 벌금형과 함께 1837년까지 검열형에 처해지게 되었다. 이를 빌미로 교회당국은 그룬트비가 쓴 찬송가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이 일련의 사건 속에서 그룬트비는 1826년 목사직을 그만두게 된다.

이후 그룬트비는 십여 년이 넘도록(1826-38년) 자신의 사상을 정립하고 전개하기 위한 고독한 투쟁에 몰두했다. 이를테면 이 격동적 과정 속에서 그룬트비는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밝히기 위한 글을

쓰게 되는데 예컨대 ‘종교의 자유’(On the Freedom of Religion)가 그 중 하나이다. 그는 자유교회를 설립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고 급기야 1831년에는 왕에게 설립 청원서를 제출하였는가 하면, 노르웨이나 영국에 이주하여 좀 더 자유로운 조건 속에서 활동하고자 희망도 피력하게 된다. 그러다가 1828년 그는 고대 북유럽 영웅들에 대한 자신의 관심으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이 맥락에서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스칸디나비아의 역사와 문헌자료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서 영국 연구 여행을 꿈꾸게 된다. 그의 소원은 덴마크 왕실의 장학금으로 실현되었다. 그는 1829년, 1830년, 1831년 세 차례에 걸쳐 매해 여름을 이용하여 영국에 갔다. 이 연구여행을 통해서 그는 그때까지 묻혀 있던 자료들을 찾아낼 수 있었으며 이를 기초로 기독교와 인간의 삶 및 세속 문화에 대해 의미심장한 관점을 새로이 발전시킬 수 있었는가 하면, 영국학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문화적 유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했다.

영국에서 그는 둔중하고 불친절한 영국인들이나 언어상의 어려움 혹은 생기 없는 영국 교회 예배나 그리 찬탄할 것 없는 영국의회의 구조 때문에 실망이 적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게 된다. 이를테면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난 공장의 생기와 역동성으로 그 곳에서 비록 산업의 어두운 면을 통찰하기는 했지만 옛 북유럽인들의 정신을 찾아냈다. 큰 성과중 하나라면 그것은 영국대학의 생기와 능동성에 관한 것이었다. 그 가장 두드러진 것은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대학에서 행해졌던 포럼으로 이를 그는 사상의 교류를 위해 매우 가치 있는 형태로 여겼다. 또 한 가지 특기할만한 것은 그곳에서 만난 아리따운 여성 클라라 볼튼(Clara Bolton)과의 만남이었는데, 대화과정에서 그녀는 그에게 특별한 영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그로 인한 그녀와의 사상적 교류는 몇 년간 이어졌다.

1832년 영국여행 이후의 시기는 자신의 사상과 활동 면에서 그룬트비가 정점에 도달한 시기로 평가된다.

그는 영국 연구여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1832년 『북유럽신화』(Norse Mythology) 개정판을 펴냈다. 이 개정판에서 그는 자신의 새로운 관점에 따라 첫 번째 판을 철저히 수정했다. 거기서 그는 로마와 이탈리아의 죽은 유산을 답습하는 당대의 학자들의 행태를 영혼을 파괴하는 고전어 학습으로 단정하는 대신, 새로운 삶을 고취시키고 영감을 불어넣는 지식을 회구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북유럽 전설의 영웅적 정신과 고대 희랍 신화의 천재들에게 초점을 맞춘 독특한 학습과 문화에 대한 것으로, 이를 그는 기독교와 결합된 형태, 즉 ‘모자이크-기독교’(Mosaic-Christian) 라는 사유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그는 사고와 믿음 사이를 엄격히 구분했다. 모자이크 기독교 사유방식을 통해서 그는 개개 국가의 문화와 사상에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던 보편적 인간성의 차원이 나타나게 된 것은 기독교에 의한 것임을 밝혀내고자 했다. 여기서 인간은 먼지와 진흙더미로 지어진 피조물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 영적 본질이자 그 자체 놀라운 신비로 그려진다.

그는 북유럽 신화에서 기독교와 병행되는 구조를 발견했으며 그 의미는 기독교의 전래에도 불구하고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것은 북유럽 사람들의 인생의 중요한 내용, 즉 생과 사라는 조건으로부터의 해방이자 죽음 자체로부터의 해방, 혹은 선과 악 사이의 투쟁 등을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적 세계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북유럽 신화가 기독교가 소개한 것과는 또 다른 식으로 영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고대 그리스와 북유럽 신화가 말하는 인간에 관한 상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성서에서 또 다른 차원을 읽어냈는데 그것은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원에 관한 문제였다. 그는 성서의 창세기를 일종의 신화, 즉 고대인의 인생에 대한 통찰 중 결정적인 점을 보았다. 그것은 민족 신화가 개별적인데 비해 성서의 신화는 보편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었다. 이는 인간의 현실적 삶이 초자연을 드러낸다는 인식이자, 현재와 변화라는 실재의 약동하는 생활에 대한 인식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특정한 점에서 현실주의자로 볼 수 있다. 그 핵심은 사회 제도와 법, 형식들의 의미는 주어진 상황에 적합할 때 존재할

수 있는 생각에 있었다. 인생은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므로 이에 따라 형식들도 계속 변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것이 그의 정치관이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정치적 이상으로 사용하는데 대해 반대했다. 이렇게 되면 서로 간에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대신 세계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했다. 여기서 오히려 의미를 가져야 하는 것은 개개 국민의 역사였다.

그룬트비는 이러한 자신의 역사관에 동의하는 이들과 함께 (그들이 기독교의 핵심교리를 어떻게 이해하든 상관없이) ‘삶’을 지향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이를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말’을 매개로 구현하고자 했다. 이는 1837년 지은 시에 간결하고 생동감 있는 어체로 표현되어 있다: “인간이 먼저 되어라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그 다음이다. 그것이 자연의 질서이다”(A human being first, a Christian later. That is the order of nature).

그는 모든 영적 노력의 기초 조건을 궁극적으로 자유라고 보았다. 그는 북유럽에 사는 자신의 친족들에게 쓴 편지 서두에서 이렇게 썼다. 아울러 이렇게도 표현했다: ‘토르’(Thor, 북유럽의 천둥, 전쟁, 농업의 신) 뿐 아니라 ‘로키’(Loki, 북유럽의 파괴와 재난의 신)를 위한 자유를!(“Freedom for Loki as well as Thor!”). 이리하여 그는 개인의 자유를 위한 대변인으로 나타나고자 했다. 그러나 그것은 타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나 진실한 속박마저 부숴버리려는 프랑스 혁명적 자유의 개념과는 다른 북유럽의 자유관에 기초한 것으로서, 자기 뿐 아니라 동료들 자유롭게 하는 자유를 뜻했다. 이는 그룬트비 자신을 위한 자유를 의미했을 뿐 아니라 그가 맞서 싸운 적대자들을 위한 자유도 아울러 뜻했다. 이것이 바로 그룬트비의 핵심 사상이라 할 수 있는 바, 이는 그룬트비 나이 50세 때의 일로, 이때부터 그는 시인으로, 성직자로, 교육자로, 정치가로 자신을 새로이 의식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

1832년 이후 그룬트비의 창조적 에너지는 신화연구에 이어 1833년, 1836년, 1846년에 걸쳐 각각 세 차례에 걸쳐 출간된 소책자 형식의 『세계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그리스도 중심적 역사 이해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세계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민족들을 연구하면서 그는 그들의 신화에서 볼 수 있듯 이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내재된 정신에 부합하게 자신들의 역사를 형성해 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 밝혀내고자 했다. 히브리인들, 희랍인들, 앵글로 색슨인들 북유럽인들에게서 그는 인류의 진보를 잉태한 이들로 보았다. 그는 현대사에서 북유럽인들, 즉 스칸디나비아인과 영국인들의 세계사적 과제를 모국어의 목적과 양심의 자유와 모국어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를 촉진시키는 것이라 보았다. 그리고 그가 도달한 이 새로운 이상을 구현할 도구를 ‘교육’으로 보았다. 삶에 영향을 주고, 백성들을 눈뜨게 하고, 교회와 학교와 나라에서 인간의 삶이 진실로 살아있는 혹은 힘찬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 사업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과제를 그는 새로운 교회 봉사나 새 헌법, 혹은 새로운 교육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직자, 정치가, 교수 그리고 일반 국민 대중들에게 새 삶을 갖게 함으로써 또 그러한 과제를 위한 도구로 쓰임 받게 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것은 ‘계몽’(Enlightenment)이라는 과제를 뜻했다.

이 논설에서 그룬트비는 처음으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살아있는 말’에 대한 자신의 사상의 개요를 ‘책에 의한 죽음의 학습’과 대조시켜 성공적으로 설파해 냈다. ‘살아있는 말’(the living word)은 그가 1830년대에 이룩한 핵심 사상으로, 이제 이 사상은 모든 계층을 망라하여 이루어져야 할,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을 위한 기숙학교 형태의 ‘삶을 위한 교육’이라는 사상으로 발전되었다. 그 사상을 담은 책이 바로 『삶을 위한 학교』(*The School for Life*, 1838)이다. 그것은 학자들의 교회와 같은 평민대학(Folk High School)에 대한 구상이었다. 이는 루터주의와는 분명 다른 형태의 새로운 교회관의 표현으로서 이런 모색을 통해서 그는 1831년 ‘인식과 신앙’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종합해 낼 수 있었다.

평민대학이란 국민 대중을 위한 일종의 ‘종합대학’을 뜻하는 것으로 그 유일한 목표는 덴마크 국민의 ‘삶의 계몽’이었다. 이는 기독교를 전제하지 않고서도 말할 수 있는 인간의 삶의 계몽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기독교를 배제하기 위한 뜻이 아니라 삶 그 자체에 대해서 말하기 위한 논법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인간의 최종적 상을 기독교 신앙에서 찾고자 했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그 주된 목표 중 하나였다. 1832년 그룬트비는 모든 사회 계층의 젊은이들을 위한 ‘평민대학’을 제의했다.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신분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동등하게 자문회의에서 자신의 능력과 자유를 가지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하고자 했으며, 또한 조국애와 모국에 대한 권리 인식의 문제도 제기했다. 덴마크 법, 조직, 역사, 문학, 민요에 대한 지식도 그 주춧돌이 되었다. 이 과제는 모국어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국민적 배경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삶’을 위한 학교이기도 했다. 삶을 위한 학교란 내세를 위한 학교가 아니라, 계몽을 요구하는 현재의, 직접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대학을 말한다. 그에게 삶이란 역시 부자연스럽고 딱딱하고 냉랭하고 어둡고 죽은 태도에 반하는 것으로, 풍부하고 내면적이며 영혼적인 것을 뜻했다. 그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모형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칼리지들’에서 찾았다. 이 칼리지들은 코펜하겐의 대학과는 아주 다른 형태를 하고 있었다. 그는 대학과 유사한 아카데미(사회과학 연구에 초점을 맞춘)가 자리잡고 있던 작은 마을 소로Soro에 시민대학을 세우고자 했다. 크리스티안 8세와 왕비는 그 구상에 커다란 관심을 가졌지만 왕의 사후, 국회는 그 계획을 거부했다. 그의 계획은 곧바로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후 사람들은 소외의 옛 지명인 소어의 학교라는 이름으로 그룬트비의 계획을 구현하고자 했고, 이는 오늘날 시민대학의 토대를 이루었다. 처음 그룬트비가 의도했던 것은 수준 높은 규모가 큰 대학이었으나, 이대로는 되지 않고 작은 대학들이 세워졌다. 이 학교들은 광범위하게 퍼져있던 농민조직에 기초한 시민들의 손에 의해(국가 아니라) 세워졌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이 따라 대학들은 큰 규모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다.

최초의 평민대학은 1844년 독일과 대립관계에 있던 슐레스비 지방 최북단 뢰딩(Rodding)에서 덴마크의 애국심을 고양시키고 젊은 농부들의 능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세워졌다. 이 학교는 그룬트비 사상을 모형으로 세워진 것이나 그 자신이 설립자는 아니었다. 그룬트비는 교회와 교육과 정치에 있어 새로운 대중 운동의 핵심적 위치에 있기는 했지만 이들을 위한 조직가나 정당의 지도자로 나서지는 않았고 다만 이들 운동의 정신적 지도자로 여겨졌다. 그룬트비는 슐레스비 북단 지역에서 열린 대중집회에서 국민들이 모국어를 잘 지키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함에 대해 역설하면서 시민대학의 설립을 위한 용기를 고취시켰다. 그가 의도한 것은 덴마크어를 듣고, 토론하고 즐기고 정치적 자리에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능력이었다. 그 요지는 그룬트비를 존경했던 교장 요한 베게너(Johan Wegener)가 말한 학교목표에 잘 나타나 있다:

젊은이들은 이곳에서 명료하고 분명하며 올바르게 말하고 생각하고 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이 배움은 민족주의적이고 대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젊은이들의 심장은 조국과 조국의 언어 그리고 조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사랑으로 젖어 있어야 하며, 민족의 장점뿐만이 아니라 단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것 없이는 모든 배움을 실패하고 말 것이다. 이것 없이는 영혼은 형성되지 않고 마음의 발전도 없을 것이다. 이것 없이는 소작농은 그 공동체에서 독립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 없이는 소작농은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그들의 적들에게도 그들이 자신의 적들인지를 알면서도 의지만 할 것이고 모든 일들에서 그들의 도움에 기댈 것이다.

뢰딩 평민대학은 덴마크 남부에서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전초기지가 되었으며, 1865-1920년에는 아스쿠우(Askov)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평민대학은 처음부터 소작농들과 다른 계층 간의 평등을 목표로 삼았는데 이것은 바로 그룬트비가 바라던 것이었다. 그룬트비가 뢰딩 대학을 방문한 적은 없으나 이 학교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탰고, 역대 교장들은 그룬트비와의 상의를 거쳐 취임했다. 초기 평민대학들은 그룬트비와 관련을 맺고 있는 이들에 의해 설립되었고, 후대를 위해 결정적 모형이 되었던 최초의 대학은 그룬트비라는 정신적 산맥을 타고 실천적 교사로 일했던 크리스텐 콜(Christen Kold)이 1851년 설립한 것이었다. 평민대학은 1863년 당시 15개로 불어났고, 1865년과 1867

년 사이에는 25개의 학교들이 추가되었다. 동시에 이 형태의 학교는 북유럽 다른 나라들에게로도 확산되어, 노르웨이에서는 1864년, 스웨덴에는 1867년, 핀란드에서는 1889년에 최초로 세워졌으며, 그 사상에 대한 관심은 20세기에 들어서도 영국,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들과 북미와 남미, 아프리카 탄자니아 등지에서도 증대되고 있다.

삶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은 덴마크의 민주헌법 초안을 다룰 목적으로 1848년 결성된 제헌의회 의원으로 참여한 데서 나타난다. 그는 이전에는 결코 의회민주주의를 옹호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1838년 영국 의회제도를 단호히 거절한 데서 잘 나타난다. 투표가 행해졌을 때 그는 부표를 던졌다. 그는 이 초안이 지나치게 벨기에나 프랑스 제도를 본 딴 것으로 대중의 의사가 지적 엘리트 층에 의해 조작될 위험을 직시했으며, 이런 식으로는 국가적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하지만 초안이 통과되자 그 결정을 따랐다. 정치적 영역에 발을 들여놓은 처음 2년 이래 마지막까지 그의 정치적 노선은 독자적이었다.

그가 교회를 그만 둔지 십여 년이 지난 1839년, 그룬트비는 그가 임종할 때까지 자리를 지켰던 코펜하겐의 바토우(Vartov) 병원 원목으로 부임하게 된다. 그가 이곳에서 다시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작은 예배당은 가득 메워졌고 성례전과 찬송소리는 설교 보다 더 유력한 요소가 되었다. 그리고는 1843년 마지막으로 영국을 찾았다. 1940년대 바토우 병원으로부터 일기 시작한 새로운 영적 운동은 국가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이는 그가 1820년대 문학과 학문계로부터 동떨어진 때로는 밥맛없는 존재로 때로는 조롱거리의 대상으로 비쳐졌으며 작은 무리만이 그를 따랐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이 변화가 얼마나 의미심장한 것이었는지 잘 알 수 있다.

50세 이후 그룬트비는 이전과는 다르게 좀 더 행복하고 유모러스하고 외향적 성격을 드러냈다. 1844년에는 과도한 일과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질환에 노출되었다. 하지만 그는 그로 인해 결정적으로 손상을 입지는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정신과 힘을 갖추고 회복되었다.

1851년 그룬트비는 첫 번째 부인과 사별한 후 마리에 토프트(Ane Marie Elise Toft, nee Carlsen, 1813-1854)와 재혼했다. 행복했던 두 번째 부인과의 결혼은 그에게 다시 한 번 타격을 가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인이 세상을 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났다.

1853년에는 정치활동을 재개하여 하원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1854-1858년 다시 같은 자격으로 국회에서 활동했다. 1858년, 그가 75세 되던 때 그는 세 번째 부인 아스타 리츠(Asta Tugendreich Adelheid Reedtz, nee Krag-Juel-Vind-Frijs, 1826-1890)을 맞았으며 이 결혼에서 딸을 하나 얻었다. 그룬트비는 오랫동안 덴마크 교회에서 논쟁거리가 되어 왔으나 1861년 마침내 덴마크 교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독의 칭호를 받게 된다. 1866년 그가 83세 되던 때 그는 상원의 편에 서서 새로운 헌법개혁의 차원에서 국민들의 보편적 참정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에 대항하여 싸웠다. 1867년 총리주일 예배 때 정치가로서 마지막 단 위에 섰을 때 그에게 다시금 정신질환이 재발했다. 하지만 고령과 육체적 난경에도 불구하고 그룬트비는 다시 일어났고 다시금 집필활동과 설교를 계속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 후인 1872년 9월 2일 설교를 마친 후 죽음을 맞이했다. 장례는 9월 11일 거행되었으며 두 번째 부인의 가족묘에 안장되었다.

대중적 공적생활에서 그룬트비는 초기부터 죽음을 맞을 때까지 주로 시인이요 설교자로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교육의 이상과 교회의 자유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투쟁했다. 현재 3,000편 가량의 설교가 남아있다. 1837년에는 ‘덴마크 교회 찬송가집’(A Hymnary for the Danish Church)을 발간했으며, 이 책은 1870년 증보 간행되었다. 그 외 다수 작품들도 남겼다. 찬송가는 번역된 작품을 포함해서 1,400편에 이르며 현재 모두 5권으로 편집 간행되어 있다.

주요 저작으로는 (영역본으로 접근 가능한) 다음과 같은 몇몇 문헌들이 있다. 먼저 문학과 역사에 관한 것으로 북유럽신화(1832)와 스칸디나비아의 신화 혹은 상징주의(1832) 등이 있으며, 기독교 신앙과 교회에 관한 논문으로는 교회에 대한 응답(1825), 국민의 삶과 기독교(1847), 기독교의 기초적 교훈이라는 이름으로 연속적으로 1855-61에 연속적으로 쓰인 글(신약성서의 기독교, 삶의 기독교적 표징, 기독교인·영적인 것·영원한 삶, 타고난 인간성과 갱생한 인간성, 영원한 삶의 말씀), 설교문으로는 모든 성인들의 날(1839), 삼위일체 주일 후 18번째 주일(1845), 종려주일(1855), 성금요일(1855), 부활절 후 4번째 주일(1855) 등이 있으며, 아울러 덴마크 교회 찬송가집(1837, 1870)에 실려 있는 방대한 양의 송가와 시가 있다. 교육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는 삶을 위한 학교(1838), 덴마크 평민대학(1847), 국민의 삶과 우델바하 박사(1848), 제헌의회의 연설문(1848), 피터 라르센 스카예프보르그에게 드리는 글(1848), 북유럽 대학(1837) 등이 있다. 아울러 많은 양의 번역물이 있다.

2) 그룬트비의 자유교육과 평민교육 사상

그룬트비의 사상과 활동은 기독교 신앙과 덴마크의 국민적 삶에 대한 그의 독특한 문제의식을 근거로 전개되었다. 그 사상을 몇 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현재 일어나는 사건으로서의 살아있는 말과 살아있는 삶, 덴마크 국민과 문화, 평민의 계몽, 특히 농민계층의 독자적인 의미와 가치, 그리고 자유와 자유교육 등이라 할 수 있다. 살아있는 말이란 성서해석의 대상으로의 본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성례전에서 현재 시점에서 생생하게 선포되는 신의 말씀이요, 책에 있는 글이 아니라 구전과 이야기, 대화를 통해서 현재 이 시점에서 말해지는 말이다. 또 살아있는 삶이란 단지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힘과 온기 그리고 사랑에 의해 추동된 삶을 뜻한다. 자유는 그의 사상적 이력과 긴히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로, 그에게 있어 자유는 삶이 다양한 영역에서 총만하게 전개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는 종교적 영역에서 기존의 교리적 틀이나 지배적 이론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말하고자 했으며, 정치적 영역에서 자기 자신 뿐 아니라 국민들과 농민계층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자유롭게 구현하기를 원했으며, 교육의 영역에서는 아이들과 국민대중의 고유한 삶이 자유롭게 전개되기를 원했다.²⁾

그 기본 논지에 있어 그룬트비의 교육론은 정치적 성격을 함축하고 있다. 당시 세간에서는 학교와 여타 모든 교육의 목적은 자라나는 세대들을 지배계층의 상(像)에 따라 형성해야 하며, 도시 중상층의 가치로 하층민을 이끌어야 한다는 다소 명백한 견해가 지배적이었음에 비해, 그룬트비는 이에 맞서 평민과 농민들에게 깃들여 있는 내적 가치에서 그들을 위한 고유한 가능성을 보는 동시에 미래는 이들 자녀들이 주도할 것이라 주장했다. 따라서 평민과 농민들에게 마땅한 교육은 그들과 그들이 사는 세계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그들 내부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면 안 되리라는 것이 그룬트비의 생각이었다.

이 맥락에서 그룬트비는 ‘폴켈리’(folkelig)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다. 이는 덴마크 국민들이 전통적으로 향유해 온 삶과 문화에 관련한 말로, 국민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민속적 생활방식, 구전에 의한 설화와 시를 뜻하기도 한다. 이 말은 국민 모두가 관련되어 있는 전통과 가치로부터 오는 문화적, 사회적 삶을 일컫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국민 모두에게 덴마크 여와 문화, 역사에 기초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각자의 인격적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확신과 위엄을 가지고 공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뜻에서 학문적인 개념과는 상반된다. 그의 정신세계를 사로잡았던 것은 덴마크 국민과 농민들에게 깃들여있는 특정한 삶의 양식, 그들의 공동체적 삶의 활기와 풍요로움이었다. 그는 덴마크 농민문화가 비록 충분히 발전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스-라틴 문화와는 별도로 독자적 문화를 구성할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2) 이하 교육론은 Royal Danish Embassy: “N.F.S.Grundtvig”, www.denmark.org/grundt.html, 13-14, 24-25; A.M.Allchin: *N.F.S.Grundtvig*, 29의 논지에 의거했으며, 생애 기술에서 언급한 다른 문헌들을 참조하였음.

는 이를 농민들의 관습과 실용적인 지식, 문제해결 능력, 민담과 민요, 언어, 삶과 죽음의 근본 원리에 대한 농민들의 표현에서 확인하고자 했다. 그는 농민문화 안에서 그리스-라틴 문화와는 달리 민족 정체성과 민족문화를 일구어내기 위한 순수함과 굳건함을 찾아냈다. 이는 당시 부르주아 계층의 견해와는 명백히 상충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상의 배경을 이루었던 것은 당시 발흥하였던 낭만주의와 민족주의였다.

그룬트비는 민중적 문화의 개화를 위해 평민과 그들 청소년들의 '삶의 계몽'(Enlightenment of Life)이라는 명제를 제시했으며, 그 전망을 현실화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1930년 (7월 혁명이 일어났던 해로 이후 민주사회로의 이행이 결정적으로 예고된 시점) 경부터 '폴케호이스콜레'(folkehojskole), 즉 '평민대학'을 구상했다. 이는 향후 국민대중의 참여에 의한 정치체제상 변화가 불가피하리라는 그의 판단과, 그럴 경우 국민대중이 사회 제반 문제에 있어 자유롭고 강력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로 민주적 교육을 받아야 하리라는 인식에 상응하는 구상이었다. 그는 이 평민대학을 덴마크 국민이라면 누구나 들어가 교육받을 수 있으며, 장차 도래할 민주사회에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당당한 시민을 준비시키기 위한 민주적 대학으로 만들어내고자 했다. 여기에는 그의 신중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고 있었는데, 즉 그렇지 않을 경우 지적 엘리트 그룹이 지배적 권력을 행사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적 엘리트 그룹이 나온다? 현명한 왕정제가 나온다? 그는 만일 적당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후자가 차라리 낫다는 입장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룬트비는 이 구상을 위해 거의 20년 동안 힘을 기울였으며, 그 학교가 설립되도록 마지막 왕 크리스티안 VIII세를 거의 설득해내기까지 했다. 하지만 1948년 절대왕정이 폐기되고 의회가 설립 되었을 때 정권을 잡은 자유주의적 엘리트 그룹은 국민 대중을 위한 그런 식의 평민대학을 무의미하게 여겼다. 그들은 국민 대중을 위한 교육은 '위로부터' 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은 국제적 위상을 가지며 옛 고전적 교육이 가능하게 했던 세계를 대표하는 이들로 여전히 이 패러다임 안에서 사고하면서 또 새로운 시대정신 하에서도 여전히 이를 지지했던 것이다. 민주주의를 대변하고자 했던 젊은 계층이 그룬트비의 이 진보적 사상을 억누르게 된 것은 참으로 모순된 일로, 이는 그룬트비가 이전에 예상한 바 그대로의 결과였다.

평민대학에 대한 구상에서 그룬트비는 그 학교의 위상을 라틴어 학습을 전제로 하는 사회상층부와 지적 엘리트 그룹을 위한 대학에 필적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덴마크 사회와 문화의 기반이 되는 신화, 모국어, 민요, 조국의 역사와 문학 등을 제시했으며, 특이한 것은 특정한 사회적 직종을 위한 특정한 시험구조는 아예 폐지하는 대신, 그러한 요구에 맞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있었다.

평민대학이 교육목표로 삼은 계몽이라는 점에서 그는 루소에게서 자신의 사상과 흡사한 점을 발견했으나 그가 인간의 본성에 그 원천을 두려하고 영적 차원을 간과한 것에 대해 반대했다. 그러나 삶의 계몽이라는 점에서는 신학적으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고하려 했다. 그는 인간의 삶 그 자체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했다. 그는 역사가로서 역사의 계속인 '현재의 삶'을 해석하고자 했다. 그는 한 개인이 속해있는 삶의 연속적 맥락에서 역사의 특징을 보고자 했다. 그는 삶의 계몽을 '역사적 시집'이라 표현했다. 평민대학이란 한 민족의 부분인 개인에게 이러한 연속성의 의식을 품도록 하게 하기 위한 '인위적 방법'으로서 그것은 '삶을 위한 학교'여야 했다. 그것은 내세를 위한 학교가 아니라, 계몽을 요구하는 현재의, 직접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것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삶을 위한 학교는 부자연스럽고 딱딱하고 냉랭하고 어둡고 죽은 태도에 반하는 것이다. 그는 훌륭한 교사의 필수 요건으로서 풍부하고 내면적이며 영혼적인 것을 들었다. 이 시각에서 그는 시민대학에서 문어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 즉 일상생활에서 입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가르칠 것을 주장했다.

계몽을 위한 방법에서 그가 첫 번째로 중시한 것은 '자유'였다. 그것은 결코 윤리적 언설이나 요구의 형태 따위가 아니라 유순하고 온화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것은 이룰테면 '상호작용'(Interplay)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 했다. 이는 학생은 교사로부터 배우지만 교사는

학생으로부터 배워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러한 접근 방식의 기초는 먼저 교사가 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런 전제 하에서 상호 간의 살아있는 흥미를 바탕으로 가르침과 학습활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여러 이유로 우연히 호의를 가지게 된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식으로. 그 때문에 삶의 계몽은 명백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상호관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는 활력을 가지고 이끄는 강의 형태를 선호했다. 또 그러한 상호작용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발생해야 한다고 했다.

평민대학에서 그룬트비는 학생들로 구성된 회의 구조를 요청했는데, 여기서 중시한 것은 문제가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방식으로 결정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상호작용의 두 번째 형태이다. 회의에서는 대두된 문제가 유용한지 혹은 즐거운지를 두고 토의를 벌이도록 했으며, 이렇게 해서 학교의 조직이 끊임없는 발전하도록 했다. 이는 동시에 교사의 교육 과정의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될지에 관한 문제이기도 했다. 그룬트비는 여기서 놀랍게도 아무런 프로그램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이 현재적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져가기를 바랐다. 그는 책보다는 훌륭하고 정직한 마음, 건전한 상식, 좋은 귀, 좋은 입을 중시했다.

상호작용의 세 번째 형태를 그는 한 나라의 방랑 시인과 청년들 사이에서 발견했다. 왜냐하면 방랑 시인들은 국가적 나무줄기로부터 자라나고 잎과 꽃에서 삶과 활력, 생기를 얻어 진실한 자연과 모국어의 말하는 시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삶을 위한 학교는 역사적이며 시적인 학교라 할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의 활력을 모국어에서 나오는 풍요와 힘에서 얻었으며 따라서 모든 색조를 사용하여 선율을 타고 가슴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그룬트비는 모국어를 삶의 계몽을 위한 핵심 가운데 하나로 여겼다. 그는 식자들이 사용하는 라틴어와 독일어에 덴마크어를 대비시키면서 모국어의 권리를 위해 싸웠으며, 또한 학구적 문화에 민속 문화를 대조시키면서 민속 문화의 가치를 옹호했다.

그룬트비는 교육에 관련된 모든 글에서 교육의 제반 형태를 두루 다루고 있지만, 어린이 교육에 관한 체계적 저술은 내놓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의 사상은 덴마크의 어린이 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왔다.

그룬트비가 어린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청년 시절 가정교사 일을 비롯한 몇몇 교육 및 교수경험과 관련이 있다. 이때 그는 기존하는 교육체제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가 보기에 당시 학생들이 받던 교육은 상당부분 기계적 암기법과 생기 없는 교수자료로 채워져 있었고 학생들은 게으르고 무관심했다. 그 상황은 이원화된 제도 하의 사회상층부나 서민들을 위한 교육구조에서 모두 그러했다. 그룬트비는 이를 전통적 교수법의 한계 때문에, 혹은 국민 대중을 위해 국가가 도입한 의무교육제도의 한계 때문에 초래된 것으로 보았다. 당시의 의무교육제도는 다만 국가의 도구로서, 국민을 국가권력이 바라는 바에 따라 조련시켜 보려는 '강제적 훈련기관'(forced training institution)에 지나지 않는다고 호된 비판을 가했다. 그는 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교'로 단정 지으면서 '삶을 위한 학교'를 요청했다. 이는 인간 정신의 '창조적' 가능성을 발현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는 아동들에게 지식 뿐 아니라 '민주시민 됨'(citizenship)을 위한 길을 마련코자 했으며, 최선의 학교란 '선량한 시민을 기르는 집'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그가 생각한 교육의 목적이라면 그들을 위한 교육의 자리와 내용과 방법도 기존하는 것과는 달라야 했다.

그러한 교육의 자리란 바로 부모와 교사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설립한(국가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자유학교나 집에서 부모가 자유롭게 시행하는 교육을 뜻했으니, 단 그룬트비는 학교보다는 집에서 하는 교육을 좀 더 이상적인 것으로 보았다. 부모는 이런 교육에서 책임적이어야 하고, 국가는 이 책임을 함부로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형태의 홈스쿨링의 기회는 소수 계층에게만 주어졌고 대부분의 경우 자유학교를 이용했다. 이후에 세워진 자유학교들은 그룬트비와 콜 그리

고 그룬트비의 노선에 서 있던 이들이 깔아놓은 기초 위에서 운영된 것들이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그룬트비는 '생동성', '자유', '자연스러움'을 중시했다. 당시 서양세계에서 보편화되어 있던 기계적 암기학습의 폐기를 요청하였고, 대신 '이야기'와 '노래' 그리고 '놀이'를 추천했다.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즐거움과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상호적'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two-way communication)구조를 중시했다. 즉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교사와 부모 등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교호작용'(a living interplay)이 일어나야 하고, '강의'와 '시험'이 능사가 아니라, '자유로운 담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교육과정의 기본 축은 '읽기', '쓰기', '셈하기' 외에도 '동물과 식물에 몰두하기'와, '삶의 실제적인 기술'을 익히는데 두었다. '조국의 역사'와 '종교'를 중시했으며 이들 과목은 교사의 '이야기하기'와 '노래하기'를 통해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특히 종교교육의 경우 그룬트비는 학교에서 의무로 가르치는 종교수업이 종종 아이들을 매마르고 경직되게 만든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그 까닭을 교리주의적 종교수업으로 돌리면서 그와는 다른 해법을 모색했다. 근본적으로 성경과 기독교 신앙은 학교의 강제적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들이 책임을 지고,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었다. 방법에서도 역시 일방적 주입이 아니라, 역사과목에서처럼 이야기하기와 노래하기를 권장했다. 그룬트비 스스로 학교에서 '생생하게 쓰일 수 있는' 많은 노래들을 작곡했는데, 그 주제는 성경과 세계사와 덴마크 역사에서 취한 것들이었다. 이 노래들 중 상당수는 아직까지도 프리스콜레에서 불린다. 그는 아이들의 이지력 뿐 아니라 감정적 삶과 풍부한 경험을 진작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지력 역시 좀 더 폭넓게 발달시킬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아동교육에 대한 그룬트비의 관점은 교사교육기관을 통해 덴마크 교사 양성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며 대부분의 덴마크 학교들에 폭넓게 스며들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가면서 또 다른 독자적 관점을 가지고 자유학교를 현실적으로 구현했던 인물이 바로 크리스텐 콜이다. 이 점에서 그룬트비와 콜은 늘 한데 엮어서 일컬어진다. 하지만 콜은 단순한 계승자나 그룬트비 이론의 실천적 계승자가 아니라 또 다른 정신적 배경과 이력 속에서 독자적 관점을 가지고 일했던 인물로 이 두 사람의 사상과 활동을 각각 정당하게 언급할 때 덴마크의 자유교육의 역사적 위상과 후세를 위한 의미도 정당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먼저 크리스텐 콜의 생애와 자유학교를 위한 그의 활동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2. 크리스텐 콜

1) 크리스텐 콜 - 그의 평민대학과 프리스콜레

크리스텐 콜(Christen Mikkelsen Kold, 1816-1870)³⁾은 자유학교라는 주제에 있어 그룬트비와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비중 있게 거론되어 왔다. 그는 그룬트비의 사상적 영향권 안에서 그와 특정한 관계 속에 있기는 했지만 독자적 사상 세계를 발전시켜 이를 현실 속에 구현해 낸 실천적 교육자였다.

콜은 구두 제화(製靴)업자의 아들로 교사를 바라는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났다. 그는 이른 시기 이미 공립학교의 보조교사로서, 또한 대농장의 가정교사로서 일하기 시작했으며, 이어서 본격적으로 교사

3) Dansk Friskoleforening(Hrsg.), *Die dänische friskole - ein Teil der Grundtvig koldschen Schultradition*, Faaborg 1995, 32-33. (1)과 (2), (3)의 내용은 Jindra Kulich의 다음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Christen Kold: Gründer der Dänischen Volkshochschule. Mythen und Realität", in: *Die Österreichische Volkshochschule 186*(Dezember 1997): 7-15. 아울러 다음 문헌 참조. Peter Berker, *Christen Kolds Volkshochschule. Eine Studie zur Erwachsenenbildung im Dänemark des 19. Jahrhunderts*, Münster 1984.

가 되기 위한 정규교육을 받았다. 그의 사상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은 다음 세 가지라 할 수 있다. 첫째는 그가 30세 중반 경 경건주의 평신도 설교가 피러 스카예픈보르그(Peder Larsen Skaeppenborg)의 설교에서 깊은 종교적 체험, 즉 '각성'(Erweckung)의 체험을 하게 된 것이고, 둘째는 잉에만(B.S. Ingemann)의 역사소설로부터 민족적 '각성'의 체험을 하게 된 것이다. 이 두 가지 계기에 의해 그는 30세 후반에 들어서 교사로서 어린이와 어른을 위한 교육적 활동에 몸 바칠 것을 각오하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룬트비의 정신세계와의 관련성이다. 콜은 비록 정규 교사교육을 받기는 했지만, 아주 짧게만 공립학교에 근무를 하였고 대부분의 시간을 여러 곳에서 가정교사로서 또 야간학교 교사로서 가르치며 보냈다. 그는 특기할 만한 하계도 터어키의 스미르나(Smyrna - 현재의 Izmir)에 가서 선교사 일을 도왔던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창조적인 일 보다는 단순히 부림을 당하는 식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을 강요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접고 5년간의 체류기간 끝에 1847년 트리스트(Triest)로 향해 한 후, 손수레를 하나 사서 실고는 1,200km의 거리를 도보로 여행하여 귀향하였다. 두 달 간에 걸친 이 민기지 않는 여정에서 그는 풍부한 삶의 체험을 쌓게 된다. 이 이례적 여정에서 귀향한 후 그는 링코빙의 해센펠트 목사(C.F.Hassenfeldt in Ringkobing)의 가정교사 일을 맡게 되었는데 그 때 처음으로 그룬트비 저서들을 접하게 되었다.

이런 초기 영향 속에서 콜은 농촌을 자기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본연의 자리로 삼았다. 그가 처음 1849년 농촌 청소년들을 위한 '농민고등학교'를 설립한 이래 일구어낸 성과는 오늘날 '덴마크 자유교육'이라는 세계 교육사에서 아주 독특하고 다채로운 양상인 '평민대학'과 '프리스콜레'와 '에프터스콜레' 그리고 '자유교원대학'의 원형을 처음 현실화시킨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오늘날 자유학교의 제 양태의 성격과 역사적 위치를 정당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콜의 역사적 실천 과정의 주요 대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이들 다양한 자유학교들은 그 성격상 유기적으로 얽혀 있고 역사적으로는 평민대학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보기로 하자.

평민대학은 19세기 중엽 이후 덴마크 사회에서 당시 진행되었던 정치적, 교육적, 종교적, 법적 체제의 변화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현대적 덴마크 사회의 건설과 민주주의 정치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룬트비는 성인을 위한 시민대학에 대한 구상에서 형식교육이나 직업훈련 보다는 '삶의 계몽'을 추구했다. 따라서 시험 같은 것은 생각지 않았다. 교수기술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시적-역사적 이야기 나눔'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가 주창했던 '살아있는 말'은 학생들에게 능동적 태도를 만들어냈고, 실제 생활에 구체적 관계를 가지도록 했다. 여기서 학생들은 자유로운 학습을 통해 7년간의 기초적 학교 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 받도록 하였다. 그가 가장 우선시한 대상은 농촌의 청년들이었다. 그 기본 아이디어는 농민을 참여적 시민의 일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것을 실제 구현하지는 못했다.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오늘날의 평민대학의 실제 형태는 콜에게서 유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콜은 그룬트비의 환상에 접목되어, 그러나 이를 자신의 관점으로 창조적으로 재구조화 해 냈다. 그룬트비가 성인청년교육을 생각했다면, 콜은 청소년 연령층까지를 포함한 학교를 생각했다. 이런 뜻에서 콜은 1849년 처음 '농민고등학교' 형태로 학교를 시작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콜은 처음으로 '평민대학'(folkehøjskole)을 세울 구상을 하게 된다. 이 목적으로 콜은 코펜하겐으로 가서 처음으로 그룬트비를 만났고 그룬트비는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콜은 국가 지원을 받아낼 수 있었다. 또 비어켈(Birkel) 목사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다. 그는 뤼스링에(Ryslinge)에 있는 토지를 팔고 그곳에 학교를 세웠다. 1851년 11월 1일 학교는 문을 열었다. 학생은 단 10명이었고, 3개월 후 4명이 더 입학했다. 학생들은 14~15세였다. 그의 옛 친구 아너스 달(Anders Christian Poulsen Dal)이 콜의 이 학교사업을 도왔다. 학교건물을 짓는데 콜이 함께 했는데, 3개의 창문이 달린 하나의 교실과 하나의 거실 그리고 주방으로 이루어진 건물이었다. 콜과 그의 친구는

다락방에서 학생들과 함께 잤다. 그러나 이런 스파르타 식 생활에 대한 불평은 한마디도 없었다. 매일같이 풍성한 이야기 잔치가 벌어졌고 정신적, 지적 문제가 다루어졌다.

학교의 일상은 농가의 일상과 흡사했다. 교사와 학생들은 농가의 가족처럼 서로 어울려 지냈다. 학기는 11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1일까지 계속되었다. 교과는 다음과 같았다: 세계사, 성서, 교회사, 북유럽 신화, 덴마크 역사, 지리, 덴마크문학, 노래와 읽기, 쓰기와 계산. 육체노동도 역시 도입되었다. 청년들은 소를 먹이고 주방에 물을 길어왔다. 책을 만들고, 목수일과 밭일을 하였는데, 그런 작업들에 필요한 도구와 규정도 있었다. 학생들에게 일정한 휴식시간도 주었다. 수업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주에 6일 동안 이루어졌다. 콜은 한 주에 세 번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강의를 했다. 북유럽 신화와 덴마크 소설에 관한 것으로 외부 방문자들도 와서 이 강의를 들었다고 한다. 콜의 힘과 매력은 그가 학생들이 사용하는 '일상어'로 이야기할 줄 안다는 것이었다. 강연과 이야기에서 자기 자신의 생활에서 취한 설명 자료들을 사용했다.

1852년 여름 콜은 힌스홀름의 델뷔(Dalby, Hindsholm)에 어린이를 위한 최초의 자유학교인 프리스콜레(friskole)를 열었다. 콜은 이 평민대학 일로 아이들을 위한 기초수업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러한 과제를 위한 교사양성에 대한 관심을 저버린 적도 없었다. 1853년 콜은 뤼스링에 있는 자기 재산을 팔고 평민대학교를 델뷔로 옮겨가서 1862년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재정적 어려움이 있던 시기였다. 간신히 파산의 위기를 넘겼다. 델뷔에 있던 프리스콜레가 이익을 남겼기 때문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프리스콜레와 평민대학 간의 상보적 관계였다. 즉 청소년들은 평민대학 강의를 청강했는가 하면, 교사지망생들은 이 프리스콜레 아이들을 보고서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콜은 지역 교육청과의 투쟁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그 결과 학교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1859년에는 학생수가 24명으로 늘어났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콜은 그가 처음 사용했던 그룬트비 식의 교육과정으로부터 자기 생각에 따른 교육과정으로 옮겨갔다. 역사적-시적인 문제 대신에, 성서적 사신, 즉 예수의 단순함과 형제사랑이 핵심적 사안이 되었다. 가장 강조한 것은 절제, 자기희생, 고강도의 노동이었다. 이를 그는 언어적으로 또한 일상생활의 도덕적 모범을 통해서 가르쳤다. 이는 기독교에 대한 그룬트비의 해석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의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변화는 학생들에게 시험을 부과하려는 교육청 당국과의 투쟁의 결과로 인한 것이다. 콜이 국가재정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교회당국과 공립학교를 관장하는 관청에 매년 제출한 보고에 의하면, 당시 평민대학에 물리, 화학 및 측량과목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 과목들을 콜은 그리 중시하지 않았다. 그는 자연과학 뿐 아니라 농업을 중시했다.

콜이 델뷔로 옮겨갔을 때, 그는 자신의 농민들을 위한 성인교육의 기회를 부농이었던 크리스텐 라르센(Christen Larsen)이 설립한 덴마크 협회를 통해 주변 지역민들에게 제공했다. 델뷔에 있던 그 협회의 회원은 대략 80여명 정도로 일요일 저녁마다 함께 모임을 가졌다. 델뷔에서 몇 년을 지낸 후 콜은 평민대학이 확장되기를 바랐다. 3년여 계획을 세운 후 망설이던 끝에 그는 델뷔에 있던 시민대학을 오덴서(Odense) 곁의 델룸(Dalum)으로 옮겼다. 프리스콜레는 델뷔에 남아 있었다. 첫 번 겨울 콜은 이 시민대학에 58명의 입학생을 받았다. 콜은 교육과정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했다. 당시 주무관청은 그의 학교를 그룬트비의 종교적 선전장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지역 관청은 이 학교로부터 국가지원금을 환수하도록 중앙정부에게 요청했다. 사립대학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계속해서 지원금을 지불했다. 콜은 이 싸움에서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다.

1863년 4월 1일 콜은 여성을 위한 평민대학을 열었다. 최초의 시민대학 프로그램으로서 30여명의 소녀와 성인여성이 지원했다. 시민대학의 개교는 의도한 것 이었다기보다는 우연의 결과였다. 많은 젊은 여성들이 델뷔에 있는 자신의 학교를 방문했고 그들도 같이 배울 수 없는지 간청한데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청년들은 그들의 애인과 자매들도 같이 배우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같은 수준에

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부역에서 가사를 돌보던 콜의 자매들은 소녀들에게 약간의 수공예와 가사 일을 가르쳤다. 그 외에는 청년들과 같은 내용을 배웠다. 다만 농사일은 제외했다.

1868/69 겨울 학기에는 100여명의 학생들이 등록을 했다. 그 다음 해도 마찬가지였다. 여름학기는 여성들을 위해 개설했다. 가축, 농경의 수확은 시민대학을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했다. 1870년 2월 콜은 정부의 주무관청에 편지를 썼다. 이제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의 국가 보조는 받지 않아도 되겠다는 내용이었다.

콜은 1862년 콜은 자신의 평민대학을 프리스콜레 교사 양성(자유학교와 공립학교 모두에 해당)을 위한 계속교육의 중심적 자리로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이는 어떤 모임에서 잘못 공립학교제도를 공격했기 때문에 좌초하고 말았다. 1865년 여름, 교사를 위한 18일간의 여름 과정이 개설되었다. 여기에 40명이 참가했다. 자유학교와 공립학교 모두에서 또한 교사세미나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왔다.

1870년 콜의 사후, 델룸의 평민대학교는 소녀를 위한 학교가 되었다. 그러나 참가자 수는 줄어들었다. 1883년 학교는 매각되었다. 그리고 3년 후 '기숙형농업학교'로 전환되었다.

콜에게 한 가지 중대한 한계가 있었다면 그의 강력한 인격적 힘과 압도적 리더십 때문에 동료 교사들이 종종 부차적인 존재 내지 보충 자원 정도로 전락되었다는 점이며, 아울러 마땅한 후계자를 길러내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사후 일정기간 공백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사람들은 그의 정신과 활동이 뜻했던 바 그 중대한 의미를 다시금 붙들었고 여기서 향후 평민대학을 위한 새로운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바로 이러한 콜의 사상과 실천은 오늘날 덴마크의 자유학교라는 현상, 다시 말해서 어린이와 청소년과 성인교육과 평민대학이라는 독특한 현상에 있어서 하나의 원형을 뜻하게 되었던 것이다.⁴⁾

2) 콜의 영향력

콜과 그가 설립한 학교는 그 이후 덴마크 평민대학의 모형이 되었다. 그의 영향력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그룬트비는 수차례에 걸쳐 콜을 언명했다. 콜의 성공은 학교가 가지고 있던 스파르타적인 삶의 양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두가 동일한 음식을 먹었고, 커피나 차도 마시지 않았다. 설탕 사용량 또한 극히 적었다. 한 접시에 담긴 스프에는 오직 땅콩 한 알만이 들어있었다. 콜과 동료교사는 침실을 같이 썼고 종종 두세 명의 학생들이 같은 매트리스를 썼다. 모두가 하루 종일 같이 있었으며 가족 공동체와 같은 분위기를 나누었다. 콜은 단순한 농민복을 걸치고 살았다, 그러나 학생들에게는 청결과 질서를 익히도록 요구했다. 학교수업은 겨울 5달 동안으로 제한했다. 그 외는 일을 하도록 했다. 콜의 활동은 농민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 이는 한때 콜의 제자였던 자유학교 교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평민대학의 책임자 역할을 통해서 그리고 교사 집단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룬트비의 후광은 콜의 활동 전체에 있어서 불가결하다. 그룬트비는 콜의 모형에 권위를 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룬트비의 젊은 추종자들은 1864년 이후 평민대학을 설립하면서 콜의 실천적 사례에 매우 고취되었다.

1870년 콜이 죽었을 때 그는 다만 1,300명의 학생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향후 학교를 위한 살아 있는 원천으로서 영감을 불어넣은 사람이 되었다. 학생들 뿐 아니라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가 그를 사랑했다.

4) 콜의 프리스콜레와 평민대학에 관해 좀 더 상세한 것은 최근 간행된 다음 연구가 있다. Birte Fahnoe Lund & Vester Skerninge(ed.), *Freedom in Thought and Action. Kold's Ideas on Teaching Children*, Copenhagen 2003.

3) 콜의 교육이념상 기초

콜은 그의 프리스콜레 교육이념에서 자유, 평등, 사랑이라는 세 가지 기본 축을 설정하였다.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기독교 경건주의적 신앙체험의 요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⁵⁾ 앞서 그의 경건주의 설교자와의 만남에 대해 거론하였거니와, 그는 요컨대 스카예픈보르그가 “우리 주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했을 때, 기독교 복음의 핵심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인식은 콜에게 삶과 자유를 체험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 개인적인 체험은 추후 그의 생애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그의 프리스콜레의 성격을 규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그가 기독교를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확실성’과 ‘평등’과 ‘자유’를 포괄하는 살아있는 전제로서 받아들였음을 뜻한다. 즉, ‘자유’와 ‘평등’과 ‘사랑’을 말하는데, 따라서 의견이나 세계관이나 교육적 프로그램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살아있는 전제에 따라 교육을 추구하고, 아이들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먼저고 방법은 나중에 온다는 것이다. 기독교란 삶의 입장이지 의견의 집합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사와 학부모는 이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이 문제는 삶의 진지한 교류와 대화를 통해서 서로 잘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자유가 프리스콜레의 ‘전제’라면, 그 ‘방법’도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오늘날 덴마크 자유학교 전반에서 종교수업은 강요된 체제 하에서 기독교 신앙의 주입이 아니라, 대화적 구조에서 기독교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종교를 배우게끔 하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는 바, 이는 콜의 전통을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3. 그룬트비와 콜의 관계

프리스콜레와 평민대학의 정신적 기원은 그룬트비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룬트비는 시민대학의 사상적 기초를 놓았고 아울러 프리스콜레를 위한 정신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에 비해 이 두 가지 학교 형태를 실제로 설립한 것은 콜이었다. 콜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상황 전개를 거론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보통 자유학교는 ‘그룬트비-콜 식의’ 학교라 지칭된다.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⁶⁾

지금까지 양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이 있어 왔던 바, 그것은 평민대학에 대한 그룬트비와 콜의 생각은 같은 맥락에서 서 있었으며, 콜이 이를 현실화 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양자 간에 존재하는 공통점도 있었으며 차이점도 존재한다. 이를테면 양자 모두 책에 담긴 지혜를 혐오하였고 인간을 ‘살아있는 말’로 각성시키고자 했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그룬트비가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을 ‘계몽’시키고자 했다면 콜은 경건주의적 의미에서 기독교적 삶으로의 ‘각성’을 교육의 최우선적인 과제로 여겼던 것이다. 그룬트비가 생각한 학교에 있어서 종교는 있을 자리가 없었다. 종교는 가정에서 가르쳐야 할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콜은 계몽 보다는 신앙적 ‘각성’을 우선시 했다. 전자가 ‘계몽된 시민’을 추구했다면 콜은 ‘실천적 그리스도인’을 추구했던 것이다.

그룬트비는 코펜하겐 시에 살았고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좋은 교육을 받고 높은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나 널리 인정받던 목사들과 교제를 나누었던 학자요 시인이었다면, 콜은 민족의 사람으로 단순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다. 그는 농부처럼 입고 다녔고 그들이 말하던 일상어를 구사했다. 그는 책이라곤 다만 『초등학교에 관한 나의 생각』(*Om Borneskolen*)이라는 하나의 책만을 남겼고 그것도 사후에나 출판되었다.

콜이 민족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룬트비의 생각과 일치하는 점이 있었고 어느 면에서 그를 따랐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있으나, 아울러 정신적으로 빛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어머니요, 경건주의

5) Dansk Friskoleforening(Hrsg.), *Die dänische friskole - ein Teil der Grundtvig koldschen Schultradition*, 19-20.

6) Jindra Kulich, “Christen Kold: Gründer der Dänischen Volkshochschule. Mythen und Realität”, 10-11; Dansk Friskoleforening(Hrsg.), *Die dänische friskole*, 12, 32-33.

설교자인 스카예프보르그요 실존주의 철학자인 쇠인 키어케고어(Søren Kierkegaard) 같은 이들이었다. 이 점에서 콜은 독자적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이었다. 콜은 그룬트비 추종자들이 걸었던 것과는 다른 길을 걸었다.

평민대학 문제에 있어서 그룬트비가 그 어머니 격이라면 콜은 그 아버지 격이라 할 수 있다. 콜은 자신이 살았던 시대에 의해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룬트비의 역사적-시적 환상을 따를 수 없었다. 평민대학은 그 때문에 그룬트비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와 내용을 갖추게 되었다. 평민대학은 기존의 일반대학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다. 두 사람 모두 시험과 벼락공부를 거절했고, 수업을 보편적 인간이라는 주제 하에서 강연과 이야기 나눔으로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 한 가지, 콜이 평민대학을 가정생활 구조로 만들어 제시했고, 감정의 역할을 이끌어 들였다(학생 개개인을 위한 배려라는 점에서 중요한)는 점도 거론할 만하다.

인간 발달에 관한 견해에서도 양자는 달랐다. 즉 그룬트비는 인간발달을 세 가지 단계인 아동기와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셋으로 나누어 보았다. 즉 아동기는 상상력의 단계요, 청소년기는 감정의 단계요, 성인기는 이성의 단계로. 청소년기는 시와 역사에서 끄집어 낸 '살아있는 말'을 통한 '깨우침'을 위한 시기로 보았다. 그런 점에서 평민대학에 입학하려면 최소한 18세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콜은 자신의 농촌 청소년들과의 경험으로부터 18세는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농촌의 청소년들은 파이프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고 호주머니 시계를 사는데 관심을 기울인다. 청소년기는 시와 신화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시기라 보았다. 그래서 그는 평민대학 입학연령을 14세로 잡았다. 그러나 뤼스링에에서의 첫 번째 경험을 통해서 콜은 자신의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상 거론한 몇 가지 점에서 종종 그룬트비-콜식의 학교라는 지칭에 대해서는 특정한 단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전제 하에서 초창기 자유학교들의 설립과 그 이후의 전개양상에 대해서 좀 더 정당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룬트비와 콜의 이러한 사상과 활동은 순수히 독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유럽에서 전개되어 오던 다양한 정신사적 흐름들의 맥락에서 있는 것으로 다음 한 자리를 내어 그 주요 모티브가 어떤 것인지 일별해 보기로 한다.

4. 덴마크 자유교육운동의 사상적 배경

덴마크 초창기 자유교육 운동의 배경을 이루는 몇 가지 사상적 흐름이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계몽주의(Aufklärung)와 경건주의(Pietismus), 자유주의(Liberalismus)이다. 이 셋은 17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사이 유럽 사회에서 맹위를 떨치면서 철학, 종교, 사회, 정치, 교육의 영역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일구어냈던 사조들이다. 계몽주의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후반에 이르는 사이(Locke에서 Kant 까지) 17세기~18세기 유럽 사회에서 기존 가치 체계와 질서에 맞서 '이성'과 '진보'와 '자유', 보편성과 이성을 통한 인간의 성숙을 위한 기본 명제의 구현을 위해 씨름했던 정신적 사조라면, 경건주의는 계몽주의와는 다른 축에서 루터 정통주의 신학 노선에 합류시킬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애초부터 교파적 관심사는 없었던 자유로운 신앙운동으로, '신비적-영적 전승'과 관련을 맺으면서 개인의 주체적-내적 각성(Awakening, Erweckung)과 선행 그리고 성화를 추구했던, 또한 그에 상응하여 교회의 내적 쇄신을 꾀했던 기독교 정신 운동이다. 이 둘에 의해 강력하게 추동되었고 또 이 둘과 결합하여 작용했던 사조가 바로 자유주의이다. 이 시기 자유주의는 전통, 인습, 교리로부터 벗어나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추구하려는 자유로운 정신적 태도를 지칭하며, 철학과 종교, 정치, 경제, 교육 등 문화 전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자유주의는 새로운 사회·정치적 범주로서의 '민주적 시민사회'를 태동시켰다.

그룬트비와 콜은 덴마크 사회가 앞서 거론한 세 가지 모티브라는 의미에서, 즉 과거의 정치적, 종교

적 인습으로부터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고 있던 와중에서 살았다. 정치적 민주화의 바람 속에서 절대왕정이 종식되었는가 하면, 국가제도적 교회의 신앙 틀은 신앙의 주체적-내적 체험을 강조하는 신앙양식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 전자가 계몽주의와 관계있는 것이라면, 후자는 경건주의와 관계가 있다. 자유주의는 이들 맥락에서 동시에 작용하고 있었다. 그 핵심 모티브는 19세기 중엽 무렵 변화되기 시작한 정신적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자기 책임적으로 혹은 자기 체험의 방식으로 이해하려는데 있었다. 경건주의 신앙운동의 영향 하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를 국가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규정지으려 했다. 이 문제가 해결되자 경제, 직업생활, 정치 문제도 그런 방향에서 해결하기 위해 씨름하기 시작했다. 자유교회나 낙농 및 도축 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민중들의 집회장소 같은 것들 모두가 이러한 노력으로 탄생되었다. 정부나 관청이 움직이지 않으면 민중들은 곧바로 주도권을 행사했다. 이 새로운 정신적 흐름을 배경으로 살면서 또 그 모티브들을 새로운 차원에서 발전시킨 이들이 바로 그룬트비와 콜이다.

아울러 이들 세 가지 사조와 함께 '낭만주의'(Romantizismus)와 '민족주의'(Nationalismus)에 대해서도 언급해야겠다. 낭만주의는 그 양상이 너무도 다양하여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 성격을 일별하자면, 계몽주의적 사고의 맥락에서 있지만 그것과의 피할 수 없는 논쟁 속에 자리잡은 정신적 태도로써,⁷⁾ 과도한 이성주의에 반하여 감정과 열정적 경험을 추구하는 정신적 성향을 지칭하는가 하면, 보편성이나 불변성에 반하여 개별적인 것, 특수성과 다양성, 유기적 형식, 지역적인 것, 가변적인 것, 비합리적이며 형언할 수 없는 것, 환상적인 것 등을 탐닉하거나 추구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낭만주의는 “어떤 진부함으로부터의 탈출을 방해하는 인간 삶의 내부에서 움직이는 힘을 이해하는 문제”(스탕달)라든지, “무한으로 솟구치고 싶은 충족되지 않는 끔찍한 욕망과 개체라는 비좁은 굴레를 박차고 나가고 싶어 하는 열에 들뜬 갈망하는” 마음이라든지, 강력한 “자기중심적 성향”에 이끌려 “더 큰 세계를 희생해 개인을 강조”하는 태도 같은 것을 뜻한다. 그 특징적 양상은 열정과 감정, 태고성과 원시성 또 그에 대한 향수, 젊음, 자연 상태의 인간에게 넘쳐흐르는 삶에 대한 감각, 소요, 혼돈, 충동, 풍요로움, 끝없이 샘솟는 다양성에서 나타나며, 그런가 하면 평화, 위대한 자기 존재와의 합일, 자연 질서와의 조화, 천국의 음악, 모든 것을 포함하는 영원한 정신 안에서의 용해, 낯설, 무상한 현재, 이국적인 것, 그로테스크한 것,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것, 폐허와 달빛, 마법의 성, 요정들, 폭포, 강변의 낮은 물방앗간 등 같은 주제들에서 나타난다. 낭만주의자들의 자연관은 특히 흥미롭다. 이들은 자연을 신적인 것이 깃든 신비로운 존재로 여겼다. 낭만주의의 단서는 영국에서 처음 발단된 것으로 종종 추정되지만 그 본격적 전개는 독일에서 이루어졌다.⁸⁾

한편 민족주의는 특수하고 지역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낭만주의적 특징과 연관되어 나타난 정신적 태도라 할 수 있다. 통일된 중앙정부를 갖지 않고 작은 나라들로 구성된 일종의 연방적 정치 구조 속에서 살아가던 독일인들은 계몽주의자들의 보편적 이성이 파악해 낸 역사관에 공감할 수 없었다. 이들은 한 민족의 의미와 가치는 그 민족 외부에 존재하는 보편적 척도로 가늠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그 민족 자체가 가진 고유성에 의해서 비로소 정당하게 드러나는 것이라 보았다. 요한 고트프리트 폰 헤르더(Johann Gottfried von Herder, 1744~1803)는 그 대표적 주자였다. 그는 칸트의 보편주의적 사고를 거부하고 자국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요소를 언어로 보았다. 언어는 한 문화권의 사고를 결정짓는 문제로서 파악되었고, 그 언어란 ‘모국어’를 뜻했다. 이 과제와 관련하여 ‘문헌학’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헤르더는 토착문화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열심히 ‘민요’를 수집했고 그런 맥락에서 ‘민속적 전통’도 열렬히 옹호했으며, 또한 영국의 셰익스피어(Shakespeare)에 필적할 만한 ‘독일만의 문학’의 화려한 개화를 진작시키고자 했다. 젊은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의 작품 세계는 그러한 관심사와 긴히

7) 이 사조를 계몽주의와 같은 맥락에서 보려는 이유는 낭만주의자들이 계몽주의자들의 지나친 합리주의를 배격했을 뿐 이성이나 합리성 그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며, 다른 한편 계몽주의자들이 추구했던 지적·정치적 자유와 해방의 문제에 공감했고, 그런 점에서 개혁적 노선에서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계몽주의자들 역시 감정을 배격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감정을 그들 사상과 행위의 본질적 부분으로 귀속시켰는데 왜냐하면 이성적 비판에 의한 사회 변혁적 행위는 ‘정열’이나 ‘애착’ 같은 ‘감정적 차원’을 늘 함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Duncan Heath & Judy Boreham, 『낭만주의』 (Introducing Romanticism), 이수명 역(서울: 김영사, 2002), 14~15.

8) Isaiah Berlin, 『낭만주의의 뿌리』 (The Roots of Romanticism), 강유원·나현영 역(서울: 이제이북스, 2005), 28ff..

맞닿아 있었다. 헤르더는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해서 근대 '인류학'을 정초한 사람이 되었다.

낭만주의와 민족주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모티브 중 하나는 유기체적 사고이다. 이는 개체와 사회를 하나의 커다란 생명적 전체 속에 연관되어 있는 통합체로 보려는 것이다. 하나의 민족은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그 자체 내적 법칙에 따라 탄생하고 성장하고 쇠퇴하는 식의 자연적 과정을 따른다는 견해이다. 그런 점에서 모든 민족은 각기 고유한 역사를 가진다. 이는 연속적이고 직선적인 계몽주의적 역사관과는 다른 것이었다. 계몽주의 사고형식의 문제점이라 할 것 같으면 개인들의 경험세계 외부에 추상적 '총체성'을 설정한다는 것으로 자칫 '전체주의적 사고'로 귀결될 수 있다는 데 있다. 하지만 헤르더는 유기체적 사고를 극단적인 형태로 밀고 가지는 않았다. 이는 최대한 외부적 강제 체제로부터 독일 민족의 독자성을 드러내고자 했던 노력의 표현으로, 종종 민족들 간의 폭력적 갈등을 조장했던 배타주의적 태도와는 무관하였다.⁹⁾

낭만주의와 민족주의 주요 모티브는 그룬트비의 정신세계에서 두루 찾아볼 수 있다. 그의 북유럽신화 연구, 덴마크 역사와 모국어에 대한 사랑, 조국을 주제로 한 노래와 시편, 농민과 평민의 삶과 문화적 능력에 대한 가치인식, 민담과 민요 수집 같은 주제들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룬트비를 낭만주의자나 민족주의자라 부르기는 어렵다. 그는 조국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전통적 의미에서 민족주의자나 국수주의자는 아니었다. 타국에 대해 공격적이거나 팽창주의와는 무관하였다. 그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문화적 연대를 강조했지만 1840년대와 50년대 젊은 자유주의 계열의 학자층이 추구했던 범 스칸디나비아주의와는 명백히 거리를 두었다.¹⁰⁾ 이는 그가 계몽주의와 경건주의, 자유주의의 정신적 분위기 속에서 살았지만 그를 그 어떤 특정한 "~주의자"로 규정하기 어려운 점과도 같다. 이 논리는 폴의 경우에 대해서도 흡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 폴은 그룬트비와 다르게 경건주의의 직접적 영향권 하에 살았고 또 거기서 깨달은 것을 교육에 반영했지만, 전통적으로 매우 엄격한 경건주의 교육학¹¹⁾과는 달리 아동의 '자유'에 역점을 둔 교육을 구현코자 했으며 이런 점에서 경건주의 교육학으로 부르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흡사 계몽주의 정신에서 자라난 '박애주의'(Philanthropinismus)¹²⁾ 교육의 풍미가 물씬 풍기기도 한다.

9) Duncan Heath & Judy Boreham, 『낭만주의』, 36-40.

10) Niels Lyhne Jensen, *A Grundtvig Anthology*, 28-29.

11) 대표자로는 독일의 프랑케(A.H.Francke, 1663-1727)를 들 수 있으며, 교육을 오직 종교적인 것으로 파악하며, 어린이를 참된 경건과 기독교적 지혜로 이끌어 경건한 교인을 육성하고자 한 교육사조를 일컫는다. 오인탁 외 『기독교교육사』 2008. 기독교, 215. 아울러 양금희, 『근대기독교교육사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에서 경건주의 교육 부분 참조.

12) 계몽주의 시대 바제도(J.B.Basedow, 1724-1790)를 비롯, 그런 방향에서 활동한 이들의 사상적 형태를 지칭하는 말로 '박애의 학교'(Schule der Menschenfreundschaft, 1774-1793)라는 말에서 유래하는 교육사조로, 인간 안에 내재된 자연선 선함을 신뢰하고 행복에 이르는 확실한 길을 이성에서 찾으려 다양한 양식의 집필활동과 학교설립 등을 통해 삶 전체를 인간화시키고자 했다. 오인탁 외 『기독교교육사』, 215.